

■ ■ ■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1.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2. 중동지역 정세 안정을 위하여
3. 한반도 평화와 정세 안정을 위하여
4. 한국 5만/미국 30만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5. 디모데프로젝트 2,4,5단계들을 위하여
6. 청춘시니어대학을 위하여
7. 가을학기 한국학교 개강을 위하여(9/7)
8. 하나님의 VIP 4기 개강을 위하여(9/16)
9. 수요성령예배를 위하여
10. 장년주일성경 공부를 위하여
11.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12.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 선한목자 교회 - 연태희 목사

■ ■ ■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기독교 기관 선교
▶ 동아시아 50개 교회/Peter An ▶ 밀알선교단 ▶ 방송 선교지원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아프리카 우물파기 ▶ 이완구 장학사업 ▶ 사론센터 ▶ 한국선원 선교회 ▶ 소울싱어즈 ▶ 지역교회 살리기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독일/시리아 난민선교(JDL) ▶ 쿠바(정경석)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헤밀턴)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잠비아(Emile)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터키(이성숙/자슈아)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의료사업 Healing 153
▶ 미주 남침례회 SBC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CKSBCA ▶ 서북미 한인침례회 협의회 ▶ 한인국내선교부 ▶ 한인해외선교부 ▶ 남침례회 6대 신학교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 ■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담임 목사	최성은	원로 목사	문창선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헬)	민철기/253-444-8853	은퇴 안수집사	이세진 정영길 좌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안광일/253-335-9101		
영어부 목사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사무 안수집사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갠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엄슨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남궁근/253-753-8310		
행정 목사(유스&영여청년)	안재훈/253-365-1105		
한여권 공동체 목사	전우일/504-427-4590	서무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마더와이즈/유년부 사역지원	최수진/615-516-0389		
영아/유치부 사역지원	남궁민희/253-753-8312	관리	명숙헨리 토루마쥬다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헬)	봉숙옥/253-359-7869	반주자	조혜경 유상신 주사랑 윤지우
미디어전도사	장선범/469-353-3446	1부 지휘자	권수현
협동목사	장영준/425-444-1669	2,3부지휘자	김민희
사랑부(간사)	이종열/253-228-7734	찬양 인도	채병관 이정빈
		통역	김경곤 이한희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Director 박 정 희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Director 안 광 일

창립 1975. 11.2

2018년 9월 2일



tfb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 535-2240 www.tfb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주일성경공부 Sunday Service	
장년부	1부 한어예배	AM 07:55	장년(한어)	AM 09:30
장년부	2부 영어예배	AM 09:20	Korean Adult	
장년부	3부 한어(통역)	AM 11:00	장년(영어)	AM 11:00
한여청년	KCM	AM 11:00	영여청년 YAM	PM 01:00
영여청년	YAM	AM 11:00	한여청년 KCM	PM 01:30
학생부	Youth	AM 11:00	학생부 Youth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09:30	유년부 Children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11:00	유치부 Preschool	AM 09:20/11:00
사랑부(장애부)	Agape Class	AM 11:00	영아부 Nursery	AM 08:00/09:20/11:00
수요예배 Wednesday Service			금요일 Friday	
장년한어	Korean Adult	PM 07:00	한국학교 KLS	PM 07:00
영어	English Adult	PM 07:00	학생부 Youth	PM 07:00
유년부	AWANA	PM 06:45	영여청년부 YAM	PM 07:30
유치부	AWANA	PM 07:00	한여청년부 KCM	PM 07:00
토요일 Saturday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한여청지기모임		AM 07:30	한어/영어 KM/EM	AM 06:0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인도: 민철기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설교: 최성은 목사

* 경배와 찬양	1부 / 9장 “거룩 거룩 거룩” 3부 / TFBC 찬양팀
* 교독문	1부 / 35번 이사야 35장 3부 / 35번 이사야 35장
기도	1부 / 권경수 집사 3부 / 이다니엘 집사
봉헌	1부 / 486장 “주 예수여 은혜를” & 41장(1절) 3부 / 영분엘리엇, 박정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 거룩한 곳
성도의 교제	3부 / “야곱의 축복”
공동체소식	
성가대찬양	1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3부/ “놀라운 주의 능력”
* 성경본문	다니엘 6:10
말씀선포	[2018 하나님의 기준 시리즈] 11. “감사”
* 응답찬송	1부/ 455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3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 축도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All Rise)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14)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 제목: [2018 하나님의 기준 시리즈] 10.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 본문: 누가복음 15:11-32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계명을 어기면서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지만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둘째 아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후자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길 잃은 두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탕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돌아오는 탕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눅 15:18-19).” 이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는 율법이나, 구원을 위한 개인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거나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늘 반문해봐야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과거의 죄된 삶을 철저히 뒤우쳐,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바로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탕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탕자는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가장 추악한 허물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아들의 권익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의 가장 필요 한 요소는 바로 이러한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탕자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눅 15:20). 하나님은 본문의 아버지 그 이상으로 우리의 형언할 수 없는 죄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아들이 죄를 뉘우치고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조건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아들, 또 다른 탕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극진히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랑과 은혜의 관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며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다른 의미의 탕자,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지 하나님 그 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 분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를 즐기지 못한 것이라 꼬집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로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 혹은 도덕주의자였던 첫째 탕자이건, 인생의 밑바닥을 찢던 둘째 탕자이건, 우리 모두는 순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 묵상질문 1. 본문의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리고 젊은 부자청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2. “품군의 하나로 보달라”는 둘째 아들의 고백에서 배워야 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적용질문 1.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함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인가?
2.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9월 첫째 주입니다. 워싱턴 주에 벌써 가을 바람이 찾아 들었나 봅니다. 9월에도 70도를 훌쩍 넘을 때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한 해를 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청춘 시니어 대학]이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많은 광고를 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입소문을 통해서 100여명의 분들은 충분히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2년 정도는 50-60명이 최고였지만, 현재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10개가 넘는 클래스에 대한 수준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5년도에 [시니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시니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힘들게 하느냐란 이야기도 있었고, 다음 세대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젊은 담임 목사가 왜 예산과 노동력을 들여 노인 대학을 하느냐는 비판도 들었습니다. ^^

최수진 사모와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면 두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고아원과 양로원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그룹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고아원과 양로원을 같이 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가 생기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을 하다보니 특별히 양로원이나 고아원 없이도 이런 시너지가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가 VBS 와 어와나, 한글 학교 등 차세대 사역에 많은 집중을 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니어 그룹입니다. 특히 시애틀 같은 도시에 비해서 타코마는 한인 인구가 훨씬 더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시니어 세대가 고급 인력입니다. 교회 친교와 부역일등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전히 시니어 세대들이 많습니다. VBS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다면 식사나 친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니어입니다. 꾸준한 새벽기도 인원도 역시 시니어 그룹입니다.

이렇듯 시니어 세대는 세상 직업에서는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게 많은 부분에서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는 고급 인력입니다. 경험과 훈련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청춘 시니어 대학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시니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새로운 시니어 사역의 가능성과 자원을 발견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한편 어제[새학기 맞이 자녀들 축복 새벽기도회]에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유스가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새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예배태도가 진지했습니다. 오래 남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 했습니다. 설교후에는 우리 1세대들이 5분 이상 손을 들고 아론과 훌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이 [짠]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들도 귀했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지금 있는 젊은 부모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자녀들을 둔 시니어 세대들이 더 귀했습니다. 그분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바로 저거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대가 세대를 연결하는 사역만 잘 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하나님은 거기에 상상치 못하는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실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가을 바람이 좋습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의 역사를 조금씩 기대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안에서 최성은 목사 드림

수요성령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Wednesday Prayer and Worship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최성은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 도

영숙고령 집사

제 목

8.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의 권능이란?"

성 경 본 문

빌립보서 4:11-23

말 씬 선 포

최성은 목사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강해

봉사위원 Volunteer

	이 번 주	다 음 주
기 도 Prayer	1부 권경수 집사	1부 박종길 안수집사
	3부 이다니엘 집사	3부 이재찬 집사
	수요 영숙고령 집사	수요 김연정 집사
보육	영아 오복식, 제란쉬스 유치 인숙산체스, 광자웨덕	영아 구명희, 신영숙 유치 신철순, 성영자
주차장 Parking	권태운(2부) EM (3부)	권경수(2부) Ken Adkins (3부)
예배위원 Usher	안내: (1부) 정순애, 박순덕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핏서, 김정숙, 정수잔슨	
	현금: (1부) 인자킹, 김영숙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이호영, 이다니엘	
주일오찬 봉사	9/2 에베소 공동체 김연정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명숙헨리 마을	
	9/9 빌립보 공동체 이종덕 마을, 안디옥 공동체 완두멜 마을	
	9/16 예루살렘 공동체 이명순 마을, 베들레헴 공동체 정수잔슨 마을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18년 9월	2018년 10월
3(월)	교직원/안수집사 피크닉	14(주일) 전도회 월례회
5(수)	어와나 개강	15(월)-26(금) 터키선교
7(금)	가을학기 한국학교 개강	
9(주일)	전도회 월례회	
16(주일)	하나님의 VIP 4기 개강	
	디모데 프로젝트 4단계 개강	
21(금)	시니어 공동체 모임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치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 새학기 맞이 자녀들 축복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요성령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00.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강해”
※ 9/12(수)부터 에베소서 강해와 더불어 찬양과 중보기도, 개인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장년주일학교 성경공부: 9/2(오늘)부터 성경공부 교재가 ‘생명의 삶’으로 바뀌며, 말씀탐구/묵상반이 통합되어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가집니다. ※ 문의: 함명호 안수집사

분반	교실	분반	교실	분반	교실	분반	교실
민철기 (부부반)	N-209	원로목사 (시니어 남)	E-101	안광일 (1-4남전도회)	E-207	이종덕 (5-7남전도회)	E-213
정자열프 (시니어 여1)	E-103	박종길 (시니어 여2)	O-18	함명호 (1-3여전도회)	N-117	성원로 (4여전도회)	N-205
정경일 (5여전도회)	E-210	고윤주 (6-8여전도회)	N-208	함혜숙 (9-11여전도회)	E-212	민정위드맨 (오전 11시)	N-201
영라버츠 (오전 11시)	E-101						

4. 어와나 개강: 9/5(수). 오후 6:45.
※ 자녀 등록과 교사로 섬겨주실 분은 남궁곤 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5. 가을 한글학교 개강: 9/7(금) 오후 6시-9시. (수업기간: 9/7/2018-5/31/2019)
※ 수업료: \$300. 문의: 영숙고링, 김완경
6. 하나님의 VIP 3기 종강 모임: 9/9(주일) 담임목사님 댁. 오후 4:30
7. 하나님의 VIP 4기 개강: 9/16(주일) 오후 1:30. 환영반. (문의: 김성진 집사)
새가족이나 성도들 중 아직 수강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 신청 바랍니다.
8. 디모데 프로젝트 4단계(일대일 양육 중급) 개강: 9/16(주일) 오후 1:30. 베들레헴
디모데 2,3단계를 수료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사인업 용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 \$10. (문의: 민철기 목사)

9. 예수마을 공동체 주일 3부 예배 봉헌송 순서

일시	담당 공동체	일시	담당 공동체
9/2(주일)	영분엘리트/박정희 마을	9/9(주일)	오금철 마을
9/16(주일)	팔라델피아 공동체	9/23(주일)	장형식 마을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타코마 제일 침례 교회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인터컴 선교와 신사도 운동과 교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경적 선교와 성령 운동을 통해 교계와 교회들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역자 부임 한어권 공동체 사역자로 전우일 목사가님 부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실 휴무 9/3(월) Labor Day로 인하여 사무실 휴무합니다.
- ◇ 생명의 삶 9/2(주일) 주간 ※ 새벽설교는 홈페이지(www.tfbc.org)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날짜	본문	날짜	본문	날짜	본문
9/2(주일)	역대상 15:16-24	9/3(월)	역대상 15:25-29	9/4(화)	역대상 16:1-6
9/5(수)	역대상 16:7-22	9/6(목)	역대상 16:23-36	9/7(금)	역대상 16:37-43
9/8(토)	역대상 17:1-15	9/9(주일)	역대상 17:16-27	9/10(월)	역대상 18:1-8

◆ 교우동정(Compassion) ◆

- ◇ 소 천 이실민 어머니님(신영숙집사 모친) 8/28(화) 소천(한국). 위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새가족

번호	성명	인도자	비고	번호	성명	인도자	비고
127	윤창길	스스로		132	권유정	박정희	10여전도회
128	유희숙	윤창길 아내	8여전도회	133	Brendel, Johannes	권유정 아들	유년부
129	윤민혁	윤창길 아들	Youth	134	Brendel, Alisha	권유정 딸	유치부
130	김선희	영희스트로직	7여전도회	135	Shann Chung		Youth
131	양점순	최일순	6여전도회	136	Anthony Chung		Youth

- ◇ 중 보 Michael Jakubec, Daniel Woo, Warren Glauner, Frank Torres, Chae S Howard, 순동쿨루, 한옥순, 옥란워커, 수지라피엣, 김명주, 숙자나이트, 양레깅스, 이순연.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